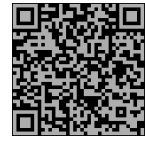


#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연중 제20주일 (2024년 8월 18일)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잠언 9,5)



성찬례 출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수도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5)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성체

## 생명의 양식

(요한 6)

# 166

M. Suzanne Toolan



1. 생 명의 양 식 인 나 에 게로 오 너  
 2. 이 빵 은 나 의 몸 너 희 에게 주 노  
 3. 내 살 을 먹 는 자 내 피 를 마 시 는  
 4. 나 는 부 활 이 요 나 는 생 명이 로



라 나 믿 는 사 람 들 은 목 마 르 지 않 으  
 라 내 몸 먹 는 자 들 은 죽 음 당 하 지 않  
 자 내 안 에 살 게 되 리 는 죽 음 없 는 행 복 속  
 다 나 믿 는 사 람 들 은 죽 음 이 오 더



며 고 내 안 에 살 게 되 리 나 그  
 에 영 원 생 명 얻 으 리 라 를  
 도 평 화 를 누 리 리 라



사 랑 하 여 나 그 를 살 게 하 리 나 그 를



영 원 히 영 원 히 살 게 하 리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

(잠언 9,1-6)

1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2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3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4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5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 생명의 빵

(요한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매번 반모임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셨다가 늘 기쁜 마음으로 반모임에 참석해 오셨던 우리 앤아버 2반의 식구인 강윤석 님, 김선형 이스베르가 가정이 7월 24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언젠가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느님의 축복이 님 형제님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반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AA2]
- “보라. 그날이 온다.” (예레 23,5)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의 욕심과 분노가 비워진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CT]
-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예레 23,5) 하신 말씀을 오늘 저는 감사와 평화로 대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욕심과 걱정으로 감사를 모르고 지내온 세월이 나이가 들면서 매일 매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건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감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정화시켜주는 체험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화가 아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결국 평화로운 사람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그 힘든 것을 견디어내려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사와 평화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CT]
-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리니, 그들은 더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 23,4)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느님은 우리를 잃어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품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따뜻함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미워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고 반성합니다. [TR 2]
-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없는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4)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TR 4]

- “세상에 공정과 정의” (예레 23,5)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측은지심처럼 타인을 공감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TR 4]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371번 ‘하느님의 음성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 하느님의 음성을

# 371

시편 40



1.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 - 기 - 도 하 면 귀 -  
 2. 주를 의지하 - 고 교만 하지 않 - 으 - 며 거짓



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다 - 네  
 에 치우치지 아니 하 - 면 복이 있으리 - 라



깊은 웅덩이 - 와 수렁에 서 견져 주시고 나의  
 하느님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 주 - 라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어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 하여 - 주시네



노래로 - 부르자랄라라 - 하느님께 올릴 찬양을 새



노래로 - - - 부르 - 자 하느 - 님 - 사랑을 새 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하느님의 꿈 본당피정을 마치며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Colombiere Retreat Center에서 성바오로딸 수도회 홍영숙 켄마 수녀님 지도하에 하느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본당 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정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숨은 이야기

오예설 루피나

소리없는 나의 이야기는

저녁 노을을 덮고

시리도록 스며드는

떠그운 그 말씀,

별만이 아는

님의 언어로

오늘을 평화로이 웃어주는

살아서 파고드는 님의 말씀,

스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릴까!

바람따라 파문이는

저녁 강물에 휩쓸려 갈까

안쓰러운 맘, 몸이달아

아늑한 하늘에 여명이 오면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감싸안아,

가난한 작은 행복 가슴에 묻고

고요히 피는 꽃이 되게 하소서



## 선하신 하느님의 꿈을 찾아서

우연히 참가하게 된 이 소중한 시간 2024년 홍젼마 수녀님과 함께, 우리 본당 자매님들과 형제님과 함께한 피정은 말 그대로 몸과 영혼의 쉼을 안겨주었습니다. 홍 수녀님 말씀대로 이건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소위 인생 하수 같다고 여기며 여유 없이, 그러나 딱히 큰 이유도 없이 그저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지쳐있는 제 눈에 들어온 피정 소식. 이런 사치를 부려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침, 그 지쳐버린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뿜어내는 또 타인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말들의 공해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고요하고 아름다운 초록의 울창한 나무들을 보니,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며칠을 다른 공간에 도착해 며칠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할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니 더 반가웠습니다. 처음 가본 미시간 다른 도시, 울창한 곳에서 우리는 친목은 잠시 접어두고 침묵을 이어 나가 보았습니다.

다시 피정 제목을 읽어봅니다. ‘하느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2박 3일간의 여정을 다시 반추해 봅니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또 잊고, 나의 꿈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시절이 길어져, 전 한 번도 하느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 하고 궁금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 주제는 제게 신선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영상과 그림도 함께 보고 나누며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해 준, 제가 얼마나 크고 선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꿈은 바로 우리의 꿈을 잘 만들어 나가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절망에 힘들어할 때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말해줄게”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젼마 수녀님께서 영상 피정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먼지 같지만, 우리 각자가 소유주임을, 우리 각자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기적임을 기억해 봅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독서 방법으로 함께 읽고 나눈,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복음 말씀 부분은 새삼스레 놀라움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아닌,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 약자와 병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고,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보고 만났으니깐요. 소중한 우리 개개인은 이 사랑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공동의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미국에 오래 살다보니, 피정을 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피정할 때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아빠와 멀리 한국에 계시는 엄마와 이번에는 언니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못보는 아픔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고, 고마움을 더 전하고 싶은 맘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울기도 많이, 웃기도 많이 한 이 시간은 쉼을 통한 치유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 디트리이트 미시간 성당 분들을 뵙고 함께 얘길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피정으로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와 푸른빛의 성전에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의 파견 미사를 끝으로 피정을 마친 후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을 새로이 아주 잘할 줄 알았는데, 바로 빼격거리는 제 모습을 보자니, 마지막 피정 실행 결심을 적어보라며, 젼마 수녀님이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웃어봅니다. 전 한 열 개 정도는 적으려 했었는데, 하나만 적길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든든한 하느님 사랑의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어, 이 듬뿍 받은 힘으로 한 일 년은 잘 살아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꿈을 나누고, 하느님의 선을 다시 실천하러 한 발짝 걸어나가 보렵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2024 7월 성경통독 월례모임 민수기 말씀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신부님의 해설을 곁들여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저자였던 레위인들의 시각에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민수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죽음과 하느님의 심판이 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전에는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께서 그런 작아 보이는 일로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빈번한 광야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레위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선벌악’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처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또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할 때만 해도 씨족에 불과하지 않았겠는지요.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민족의 기틀을 갖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힘도 기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40년은 우리에게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아마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을 테지요. 민수기는 그런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기에 긴 기다림, 오랜 기간을 걸친 변화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를 수 없고, 성마르게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 글 | 지연희 스텔라

민수기의 하느님도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광야의 백성이든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던 이민족이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 개인이든 저와 달라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웃들이든 모두 함께 사랑하십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절규하는 백성들, 먹을 것을 주면 허겁지겁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과다한 음식을 챙기는 욕심 많은 백성들, 힘들다고 꾸짖어 대는 백성들, 한 가지 소원을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불평을 하는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이든 불구하고 하느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저 광야의 백성들도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들이 맞닥뜨린 삶의 현상이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해도 갑니다. 그 어려운 광야의 삶은 그들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길고도 긴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야만 했던 시간에 그들이 선택되어 버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만 했고 견뎌내야만 다음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아픈 마음을 안고서 저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격려하면서 함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방인 혹은 본토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옛날부터도 하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느님을 기다리시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며 저에게 주실 축복을 품고서 늘 바라보고 계실 테니까요. — 글 | 김은숙 데레사

겨우 백 년도 채 되지 않는 생을 사는 미물인 인간으로서 수천 년을 거슬러 상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시대의 간극을 뛰어넘어 낯선 환경, 척박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하느님과 소통하는 지도자 아래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모습은 믿음,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불안, 불편, 공포에도 쉽게 흔들리는 나는 얼마나 나약하고 믿음이 얇은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느님의 은총이 진정한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수 14,9)라는 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으로 준비를 다시 해 보리라 마음먹습니다. — 글 | 강명선 루시아

이번 민수기 1-16장 중에서 9장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갈 때 훨씬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도 하고 하느님을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도달하고 싶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지름길이나 꽃길로만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종종 험난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느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든 삶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게 하시며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런 힘든 순간순간의 터널을 나와서 되돌아볼 때마다 하느님의 힘이 있었음을 알게 되며 하느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갈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디선가 불기둥이나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으면 하느님의 시그널을 알아차려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명심하고,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하느님의 시그널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 글 | 박소연 세실리아